

갈 길 먼 고령친화적 노동환경

50년 뒤 한국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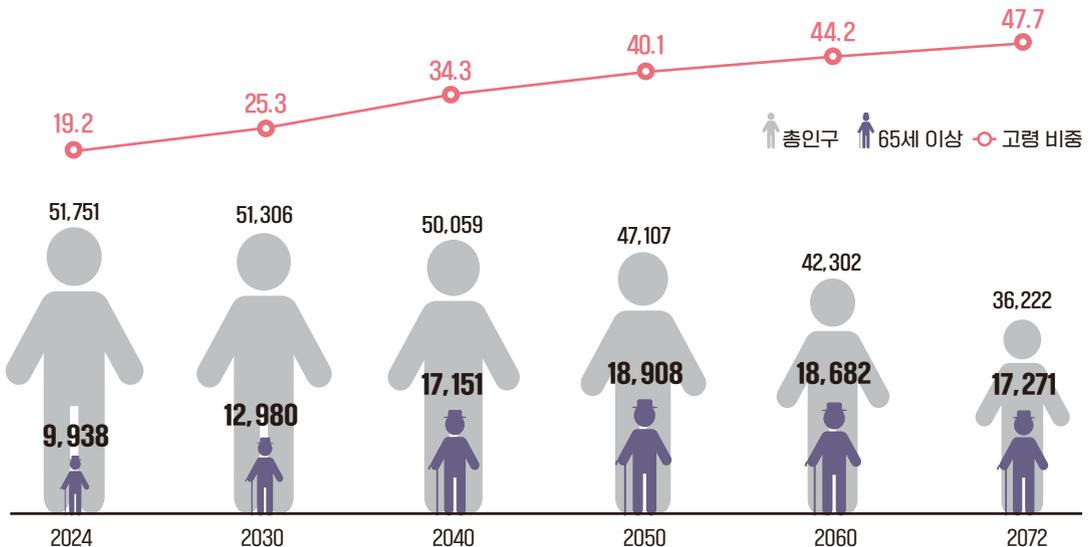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4.3%,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3월 기준 전체 노동자 2,840만 명 중 60세 이상 노동자는 637만 명으로 전체의 22.4%에 달해,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에게 포용적 일터로 새로운 생산성 지평 열어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52.1%가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로 집계돼 노동환경 개선은 필수로 보인다¹⁾. 산업별 산업재해율도 모든 산업에서 55세 이상이 55세 미만

2024 고령자 통계 및 한국 인구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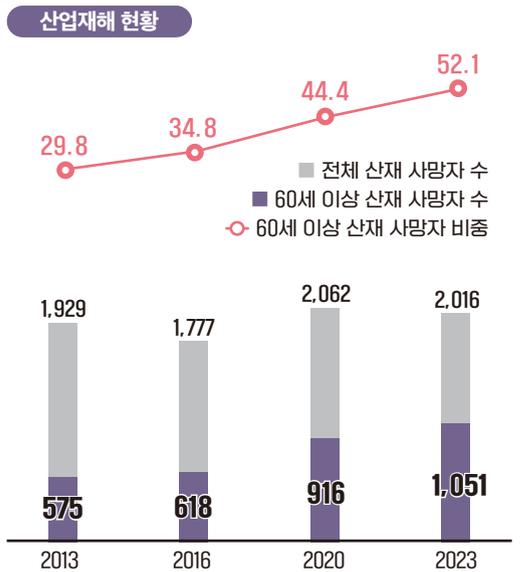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노동자가 많은 건설업·제조업에서 높은 재해율과 사망만인율²⁾을 보였다. 2017년 대비 60대와 70대는 각각 1.6배, 1.9배로 증가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현재의 노동환경이 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직업성질환 또한 고령노동자가 직면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그중 장기간 육체적 노동과 반복적인 작업 환경에서 비롯된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난청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노동자와 비고령노동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달리해 고령화 노동환경을 보완해야 한다. 고령노동자의 신체적·감각적·인지적 특성과 한계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발굴, 고령노동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예로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고령노동자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BMW는 고령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 간격을 늘리며,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나무를 깔았다. 또 최대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1년 만에 생산성이 7%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고령노동자를 위한 사업장의 선제적 관리 필요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³⁾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사업체 중 자체적으로 '고령화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은 없었다. 국내에서 고령노동자와 비고령노동자가 함께 일하기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의 고령자 지원사업은 대부분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다 고령자 신규고용 또는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 및 파악과 이들을 고려한 직무배치 또는 작업관리가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시선이 노동환경과 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비고령노동자와 달리 고령노동자의 신체기능은 점점 더 낮아지기에 비고령층과 동일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적절하지 않다. 산업·업종별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 대상의 별도 안전보건교육이나 지침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에 취약한 사업장은 고령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시설·설비·장치를 도입하거나 고령친화적 작업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관리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

1)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데이터>
 2)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
 3) 박종식·박관성·장안석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23)